



김영섭
한국고분자학회
43대 회장

새로운 50년을 향한 도약을 꿈꾸며

한국고분자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76년, 고분자 과학의 학문적 발전과 산업적 응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품고 출범한 우리 학회가 어느덧 반세기의 역사를 써 내려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학회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 그리고 묵묵히 연구에 매진해 오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학회의 50년은 도전과 성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창립 초기 57명으로 시작한 학회는 현재 5,000여 명의 회원과 전국 4개 지부, 7개 부문위원회를 갖춘 국내 대표 학술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영문 학술지 Macromolecular Research는 SCI 등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였으며, 다수의 국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고분자 과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선배 회원님들이 일궈 놓으신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성취입니다.

저는 기업 현장에서 고분자 소재를 다루어 온 사람으로서, 학회가 산업계와 맺어온 긴밀한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이루어진 기초 연구가 산업 현장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산업계의 과제가 다시 학문적 탐구의 동기가 되는 선순환은 우리 학회의 큰 강점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산·학·연 협력의 전통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고분자 과학기술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대한 요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 자립의 필요성, 그리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이 가져온 연구 방법론의 혁신까지, 우리 앞에는 도전과 기회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바이오 기반 소재, 고성능 재활용 플라스틱, 차세대 에너지 소재 등 미래를 이끌 분야에서 우리 학회 회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학회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IUPAC-PSK50 국제학술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이 자리가 반세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전 세계 고분자 과학자들과 교류하며,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고분자학회 50년사』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편찬위원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우리 학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고분자학회의 새로운 50년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